

## 『학교는 재미있어!』 독후 활동지



페터 헤르틀링 글 | 유타 바우어 그림  
봄소풍 | 96쪽 | 초등3~4학년 | 봄소풍 보물찾기 1

“

다들 너처럼 기쁜 마음으로 엄마를 도와주고 있는 거란다  
서툴지만 따스한 세상을 배워가는 소피의 하루

”





# 활동1 그림 일기에 담은 나의 아침

이 책은 소피네 집의 아침 풍경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빠와 아빠는 콧노래를 부르고 엄마는 분주히 부엌을 돌아다니고 소피는 졸면서 코코아를 마시지요.

이번에는 눈을 감고 여러분의 아침 풍경을 떠올려 보세요.

가족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주변에는 어떤 것들이 보이는지,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자세히 생각해 보고 아래의 그림일기에 여러분의 아침 풍경을 담아 봅시다.

년	월	일	요일				
<hr/> <hr/> <hr/> <hr/> <hr/> <hr/> <hr/> <hr/> <hr/> <hr/>							



## 활동2 제가 잘 할 수 있어요!

책의 '준비물' 챕터를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해 보세요

1. 고맙다고 말해야 한다는 엄마의 말씀에 소피는 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나요?

---

---

2. 여러분도 소피처럼, 내가 스스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일이지만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더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 적이 있나요? 나를 위하는 마음으로 누군가 도와주고 있지만, 그 도움이 없다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일이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고, 그동안 나를 도와준 사람에게 편지를 써 봅시다. 아래 예시를 참고하세요.

### <예시>

**상황:** 저도 제 방을 잘 치울 수 있어요. 엄마 눈에는 더럽지만, 내 눈에는 안 더러울 때가 있어요. 엄마는 내 눈에 방이 더러워 보일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고 내 방을 치워요. 그리고 나면 나는 내 방에 지우개가 어디 있는지, 먹다 남은 과자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게 돼요. 엄마가 내 방을 치워주고 나면 내 물건인데도 어디 있는지 몰라서 매번 엄마, ○ ○ 어딴어요?'하고 물어봐야 해요. 그동안 엄마에게 정말 감사하지만, 엄마가 나만의 방식을 조금만 더 이해해 주고 내가 스스로 방을 치울 때 까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엄마 눈에는 아주 어지러워보일지 몰라도 저는 제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있고 그런 제 방이 아주 편안하답니다.

에게 (개)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ten sets of horizontal dashed lines on a light orange background.



## 활동3 나의 멋진 실수 자랑

소피의 푸딩 소동을 기억하나요? 소피는 클레멘스 오빠가 하던 것을 어깨너머로 보고 자신도 푸딩을 만들어보려고 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지요. 온 부엌에 푸딩이 튀고, 겨우 치웠지만 천장에 붙어 있어 미처 치우지 못한 푸딩을 가족들에게 들키기도 합니다. 그래도 소피는 나름대로 자신의 실수를 잘 해결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처럼 '꽤나 멋진 실수'를 한 경험이 있나요? 실수였지만 재미있는 추억이 생겼든가, 실수를 내가 꽤나 잘 해결했다든가, 실수를 통해 내가 무언가 배운 점이 있다든가요. 여러분의 '꽤나 멋진 실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제목: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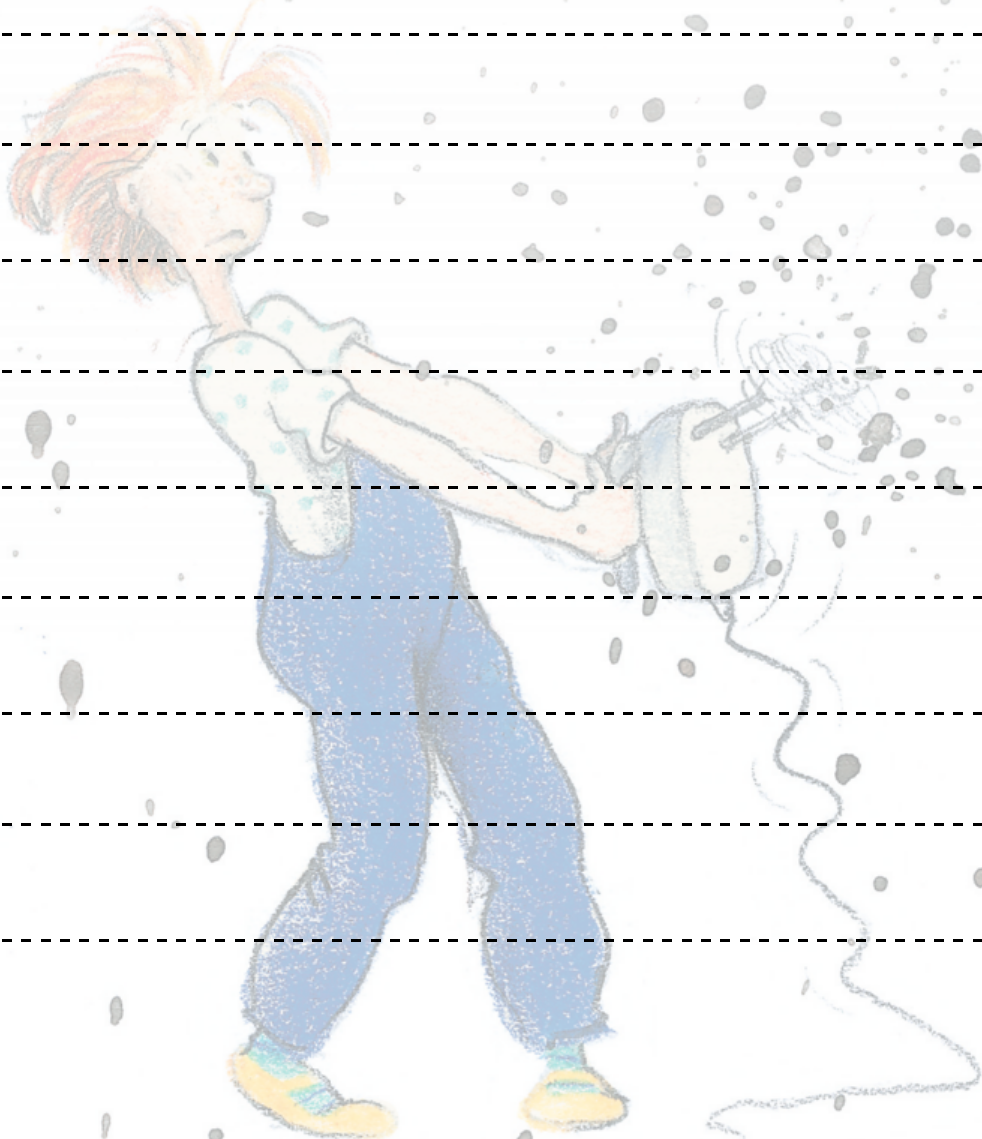
-----

-----

-----

-----

-----



## 활동4 내가 먼저 칭찬해요

책 속의 '새 스웨터' 챕터에서 발췌한 다음 이야기를 읽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소피는 엄마한테 새 스웨터를 입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마음에 든다고 해 놓고 갑자기 왜 그래?"  
"입기 싫어졌어요. 다들 이 스웨터를 싫어해요."  
"왜 그렇게 생각해?"

1. 소피는 왜 사람들이 자신의 스웨터를 싫어한다고 생각했나요?

.....

.....

2. 소피의 어머니는 소피의 대답을 듣고 소피에게 어떤 말을 해 주었나요?

.....

.....

3.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듣고 싶었던 말을 여러분이 먼저 해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칭찬의 말을 건네 봅시다.

”

.....

.....

.....



“

.....

.....

.....

활동5

# 잼 바른 빵을 깔고 앉으면

책의 '잼 바른 빵을 깔고 앉았어' 챕터를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해 보세요.

1. 소피는 어쩌다가 '잼 바른 빵'을 깔고 앉았나요?

-----

-----

2. 소피는 어떻게 다시 의자에 앉을 수 있었나요?

-----

-----

3. 우리도 소피처럼 언제라도, 누구라도, '잼 바른 빵을 깔고 앉는 일'을 겪을 수 있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나 나를 곤란하게 만드는 일**이요. 내가 잘못된 일이 아닌데도 말이죠.  
내가 겪었던 '잼 바른 빵을 깔고 앉는 일' 과 같은 경험을 써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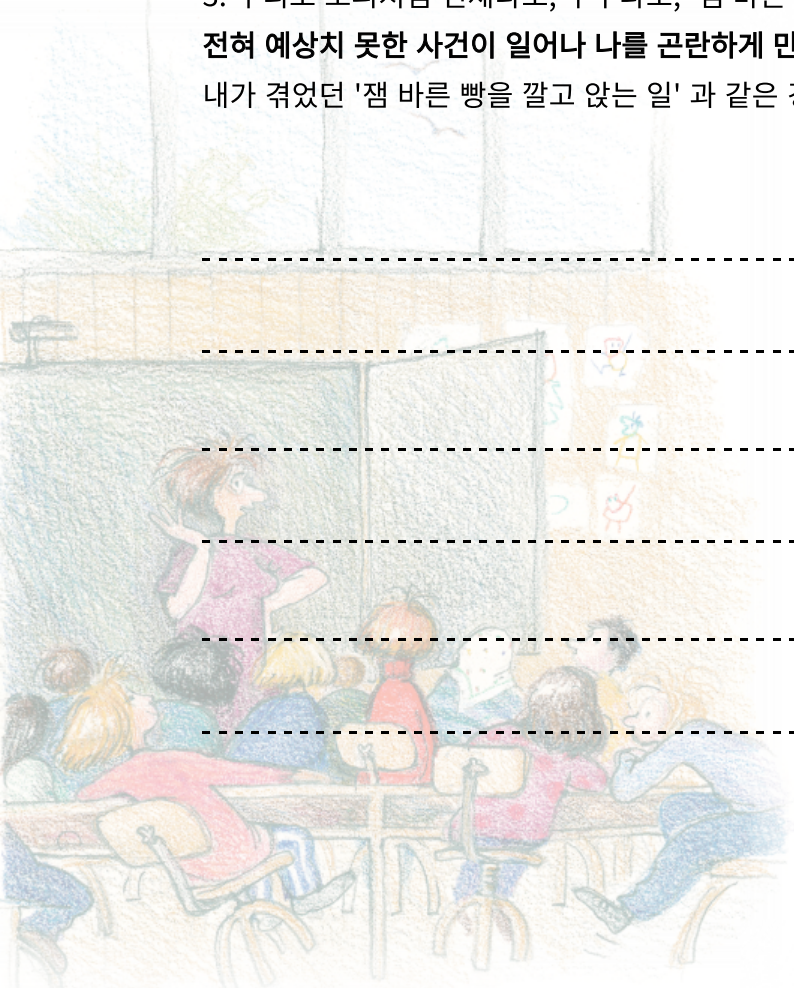
-----

-----

-----

-----

-----



4.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책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소피는 궁금한 점이 생겼지요. 수업이 끝난 후에 소피는 하인리히 선생님께 가서 다음과 같이 여쭙보았어요. 하인리히 선생님은 소피에게 어떤 답을 주었을까요?

“선생님, 저는 이제부터 어딘가에 앉을 때마다 아주 조심조심 살펴보고 앉을 거예요. 잼 바른 빵을 깔고 앉게 될까 봐서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길을 걸다가 제 머리 위로 잼 바른 빵이 푹 떨어지면 어떻게 하죠?  
저는 항상 하늘을 보고 걸어야 할까요? 걱정이예요.”

### 하인리히 선생님의 대답

.....

.....

.....

.....

.....

.....

.....

.....

.....





## 활동6 감정 빙고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는 아주 다양한 이름이 있어요.

내가 느끼는 감정을 정확한 이름으로 표현하고 인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책에는 매 이야기마다 소피가 처한 다양한 상황과 그에 따른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아래의 '감정표'를 잘 살펴보고, 표 아래의 규칙을 참고하여 '감정 빙고' 게임을 해 봅시다.

무섭다	신나다	외롭다	화나다
짜증나다	행복하다	당황하다	미안하다
억울하다	실망하다	즐겁다	답답하다
창피하다	걱정되다	설레다	샘나다
울고 싶다	부끄럽다	재미있다	편안하다
기쁘다	알밉다	속상하다	뿌듯하다
우울하다	서운하다	만족하다	불안하다
놀라다	쓸쓸하다	신경질나다	아쉽다
약오르다	후회되다	씁쓸하다	슬프다
섭섭하다	혼란스럽다	부럽다	지루하다

<게임 규칙>

1. 위의 감정표에서 고른 감정들로 다음 빙고판을 채워보세요.
2.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자신의 감정표에 있는 감정을 말하고, 말한 것은 표에서 지웁니다.
3. 내 차례가 되어 감정을 말할 때는, 그 감정을 책 속 인물들을 통해 설명합니다.

(예) 내가 지운 단어: 부끄러움 / 설명: '올리는 허풍쟁이'에서 올리는 가게에 있는 물건을 다 산다고 허풍을 쳤지만 소피 앞에서 허풍을 친 것이 들리자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4. 다른 사람이 말한 감정이 내 표에 있다면 지워나갑니다.
5. 가로나 세로, 대각선으로 한 줄을 먼저 다 지운 사람이 승리합니다.

\*위 표에 없는 감정 단어를 써도 되지만, 다른 친구들이 불러줄 확률이 적겠지요.

